



7월 1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7.2	6.25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420.27	1,390.12	↑ 2.17	↑ 28.66	785.17 '20/07/27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023.01	6,022.40	↑ 0.01	↑ 0.73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2,484.67	52,925.04	↓ -0.83	↑ 9.91	35,843.70 '20/07/02	52,925.04 '21/06/25
중국	상해종합	3,518.76	3,607.56	↓ -2.46	↑ 1.32	3,090.57 '20/07/02	3,696.17 '21/02/19
	심천종합	2,396.78	2,442.08	↓ -1.86	↑ 2.89	2,016.05 '20/07/02	2,468.66 '21/02/19
홍콩	H	10,415.58	10,878.45	↓ -4.25	↓ -3.01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8,310.42	29,288.22	↓ -3.34	↑ 3.96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281.78	3,302.84	↓ -0.64	↑ 14.21	2,135.37 '20/07/02	3,302.84 '21/06/25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7.2	6.25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1	2.25	↓ -3.50	↓ -36.60	2.20 '21/01/15	3.60 '20/07/23
인도네시아	6.59	6.54	↑ 4.50	↑ 70.00	5.89 '20/12/30	7.23 '20/07/06
인도	6.07	6.03	↑ 3.60	↑ 20.00	5.76 '20/07/10	6.25 '21/03/10
중국	3.08	3.10	↓ -1.60	↓ -6.40	2.86 '20/07/02	3.36 '20/11/19
한국	2.11	2.10	↑ 0.30	↑ 38.30	1.28 '20/07/30	2.20 '21/06/02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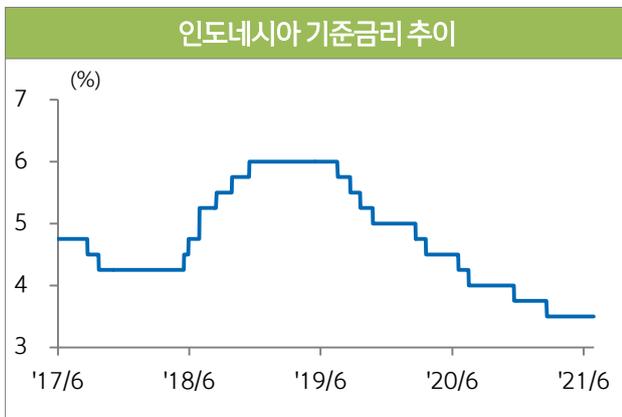
구분	7.2	6.25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997.00	23,012.00	↓ -0.07	↓ -0.44	22,944.00 '21/06/11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533.00	14,425.00	↑ 0.75	↑ 3.44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4.75	74.19	↑ 0.75	↑ 2.30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7	6.46	↑ 0.26	↓ -0.83	6.37 '21/05/28	7.07 '20/07/02
달러-원 (KRW)	1,134.82	1,127.66	↑ 0.63	↑ 4.45	1,081.81 '20/12/04	1,205.68 '20/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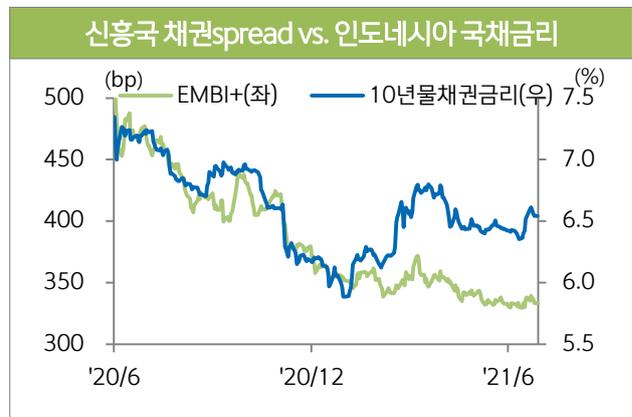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인도네시아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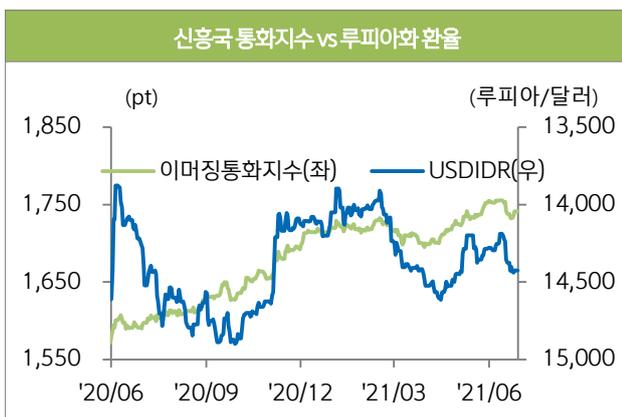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2월 기준금리 깎짝 인하 이후 최저 기준금리 수준인 3.5%를 유지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간헐적인 시행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중앙은행의 관리 범위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속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하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의 낮은 물가 수준의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수 있지만 재차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수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환한 다른 신흥국과 달리 양호한 무역수지에 기반하여 연준의 테이퍼링 검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 여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상황.** 금리 동결 전망을 반영하며 인도네시아 국채금리도 박스권 흐름 유지 전망.
- ▶ 루피아화 환율은 올해 들어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반기 美 연준이 테이퍼링 일정을 공개하더라도 **이전 대비 낮아진 경상수지 적자와 늘어난 외환보유고, 광산/2차전지/전기차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2013년과는 다른 안정적인 환율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1분기까지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서 돌파감염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정부 목표대비 집단 면역이 늦어지며 확진자수 증가하는 환경은 환율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 상반기 인도네시아 증시는 공매도 재개와 금융, 소비재업종 기업의 부진으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였음.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해낼 경우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확대와 내수 소비, 투자 확대가 동반되며 부진했던 시총 상위 금융, 소비재 업종이 인도네시아 증시의 상승을 견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주요 뉴스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경제 회복을 위한 해산물 수출 독려



### ❖ 요약 및 시사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개선세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산 해산물의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새우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환경에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양식 기술 개선과 효율 확대를 통해 새우 수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음

-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해양 및 수산 부분에서의 수출 증가가 국가 경제 성과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음. '해양 수산 부분은 2021년 들어 5월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해양수산부 경쟁력 강화 국장은 말하였음. 해양수산 부문의 무역 수지 흑자도 누적 1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3.72% 증가하였음. 해양 수산 부문의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4% 증가하였음.
- ▶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수출 업자들에게 각국의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음. 거기에 각국들이 사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수출 장벽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역 상대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들의 관계 부처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고 있음.
- ▶ 수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기여를 한 품목은 새우로 전체 수출 금액의 41%인 8.6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여기에 참치가 2.7억 달러로 12.7%를 차지하였고 오징어/문어류가 2.24억 달러로 10.6%를 차지하였음.
- ▶ 최대 수출 대상 국가는 미국으로 9.34억 달러(44.2%), 다음으로 중국이 3.1억 달러로 14.7%, 아세안 국가들이 2.3억 달러로 10.9%를 차지하고 있음.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의 수산물 수출이 증가한 것에는 미국에서의 수출 금액 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음.
- ▶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서 인도네시아산 새우 수출 증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새우 수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긍정론을 편 바 있었음. 2015~2019년 사이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우 수요는 연어에 이어 2번째로 큰 폭의 수요 증가를 나타냈으며, 2015~2020년 기간 중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 새우의 수요는 연 평균 6.9%씩 증가하였음. 이렇게 높아지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 새우 생산 및 수출 증대 프로그램을 통해 양식 인프라 확대 및 양식장 허가 간소화 등의 조치로 지원하였음. 여기에 최적 생산 기법을 찾기 위한 시험 사육장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업 기술 향상도 도모하였음. 생산 방법 향상을 통해 새우 질병 문제도 보완하고 환경 친화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새우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

(출처 : Antara News)



## 산업부, 재활용 산업이 아직 국가 폐기물의 1/3 처리에 그친다고 발표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도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 하여서 처리 능력이 폐기물 발생량대비 부족한 상황임. 산업부는 관련 산업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내 재활용 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능력이 200만 톤으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량 680만 톤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발표되었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400만 톤 수준의 처리 용량이 더 증설되어야 한다고 산업부의 그린 산업센터에서 발표하였음.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버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재활용 산업은 1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총 투자금액은 5.15조 루피아 수준임. 인도네시아의 재활용 산업은 330만 노동자들의 고용을 늘릴 잠재력이 있다고 산업부에서는 밝혔음. 플라스틱 폐기물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폐지, 섬유, 고철 재활용 등도 재활용하는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 산업부에서는 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여러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하였음.
- 우선 소비자들이 제품들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폐기물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시민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분류, 집합 및 운송하기 위한 통합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에너지나 재료로 사용되고 독성을 지닌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라이선스의 발급 체계가 필요함. 4번째 과제는 환경 안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 수집과 관련된 산업 부문을 비정규 부문에서 끌어올려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번째 과제는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독성이 없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 충분한 폐기물 처리량을 확보해야 함.
- 또 다른 문제는 폐기물과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것임. 폐기물의 양이나 발생 지역과 관련된 정보들이 부분적으로만 집계되고 전체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산업부는 발표하였음.
- 산업부는 국내 폐기물의 관리와 기업체들의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플라스틱 재료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상류 부문 산업을 독려하고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며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지원할 계획임

(출처 : Antara News)



## 인도네시아 최대 플라스틱병 재활용 공장 설립



### ❖ 요약 및 시사점

2019년에 시작된 플라스틱 PET병의 재활용 공장 건설이 완료되었음. 아직 처리 규모는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수준이지만, 재활용 공장의 건설을 통해 재활용 수집에서부터 재사용까지의 체계를 완성하여 관련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산업부 장관은 PT Veolia Services Indonesia가 Danone-AQUA와 함께 건설한 인도네시아 최대규모 PET병 재활용 공장에 대해서 승인하였음. 해당 공장은 동부자바 Pasuruan 산업단지(PIER)에 22,000 제곱미터 부지에 7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되었음.
- ▶ 재활용 공장은 2019년 3월에 처음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6천억 루피아의 건축 비용을 들여 건설되었고, 매년 식품 포장에 재활용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가진 재활용 PET(RPET) 2만 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캐파를 지니고 있음. 200명이 넘는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며, 수거된 PET 병들의 뚜껑과 라벨을 분리해낼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임.
- ▶ 재활용 공장의 건설은 Veolia Indonesia와 Danone-AQUA 사이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공헌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쓰레기 문제에서 해소해 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어졌음.
- ▶ 장관은 플라스틱 병 재활용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재활용 생태계를 개선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순환 경제 및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노력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의 건설은 2025년까지 해양 플라스틱의 70%를 줄인다는 국가 계획의 일환이라고도 하였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대에 대한 백신 접종 시작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8월부터는 1일 200만 도즈 수준의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접종소를 추가 확보하고,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음. 확진자수 증가세를 낮추고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조만간 12~17세 청소년에게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주의 코로나19 급격한 확산 추세를 완화시키고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2~17세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임.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시노백 백신을 10대들에게 긴급 사용 승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은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주에는 1일 최대 확진자수를 기록하게 되었고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1일 100만 도즈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일 37.7만 도즈의 접종만 이뤄지고 있어서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우려를 비쳤음. 그러면서 1일 200만 도즈의 접종을 8월부터는 가속화한다고 발표하였음.
-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7% 정도만 완전 접종을 완료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높은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음.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바섬 일대의 병원들에서는 병상 운용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병원들의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고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 및 활용 가능한 병원들을 수배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누적 확진자수는 21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7,561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백신 접종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거주지 근처에서만 접종을 가능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에도 경제-보건 양립 중요성 강조



###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상공회의소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 흐름으로 보건 측면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도 경제 부문에 대해서도 놓칠 수는 없다고 말하였음.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던 시점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로 정부 고민이 늘어나고 있음

- ▶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6/30) 코로나19 대유행을 해결함에 있어서 경제 회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와 공중 보건 조치 사이의 균형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경제도 회복하기 어렵다고도 하였음.
-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만 논할 수 없으며 모두가 경계심을 가지고 사태에 대응해야 하지만, 또 너무 보건 측면만 강조하면서 경제 부문은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였고, 양립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주간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25,396명으로 올해 1월의 주간 최대 확진자수 89,901명보다 높은 수준임. 코로나19 대응 TF에서는 이번을 인도네시아에서의 2차 대유행으로 부르면서, 가장 저점 대비 381%~500%까지의 확진자수 증가를 예상하며, 최대 확진자수 발생이 6주 이내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 인도네시아는 이전까지만 해도 15주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줄고 있었지만, 이틀 피트리 연휴 기간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현재는 연휴가 지난지 4주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단계임.
- ▶ 조코위 대통령은 이틀 피트리 연휴 기간 동안에 대중들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주간 확진자수가 2배 이상 증가한 228,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2분기 7% 성장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유지



###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상공회의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리 지표와 실물 주문 지표 등이 모두 개선된 것을 감안할 때 2분기에 7% 성장을 했을 수 있다면서, 현재의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경제활동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2분기에 거시 경제 지표들의 개선을 감안한다면 전년대비 7%의 성장을 보였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음. 1분기 -0.74% 성장에 비해 대폭의 개선을 보였을 것이라는 판단임.
- 6월 소매 판매가 12.9% 증가하였고 건설 프로젝트들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멘트 등 건자재의 수요도 증가하면서 19.2% 성장하였음. 상업용 차량의 판매도 73.3% 증가하였다고 하였음. 대통령은 이러한 개선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심리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4.4로 지난 2월의 85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 수요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또 다른 긍정적인 심리 지표는 제조업 지표로 빠르게 상승하여 5월 55.3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하였음.
- 수출은 전년대비 58% 증가하였고, 원자재의 수입이 79% 증가하면서 제조업 부문이 가동을 위한 기반 수입이 늘어나면서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자본재 수입 또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음.



## 인니정부,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 환율 전망치 조정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예산안과 거시 경제 정책에 반영하는 2022년 루피아화 환율 전망 범위를 기존 대비 강세조정하였음. 수출 실적 개선 등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 개선 및 구조 개혁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유인 등으로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의회는 2022년 환율 전망치를 당초의 달러당 13,900~15,000 루피아에서 달러당 13,900~14,800 루피아로 조정하였음. 이러한 조정은 거시 경제 정책과 예산안 마련에 반영됨.
- 환율 전망치를 변경한 것은 글로벌 경제 및 무역의 회복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달러대비 루피아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한 것을 반영한 것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통화 정책과, 인도네시아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호 변화 등도 반영되었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구조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높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되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수출 실적의 개선을 가속화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것도 루피아화 환율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재무장관, 샤리아 경제가 경제 회복의 주요 기반이라고 언급



###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기간 중 인도네시아가 샤리아 경제 및 금융을 통해 경제에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방향성을 지속하여서 경제 회복 및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재무장관이 다시 한 번 강조하였음.

- 샤리아 경제와 금융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빛을 발하고 있고, 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주요한 지지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고 재무장관이 말하였음. 샤리아 경제의 가치는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를 끌어 올려주고 있으며, 교육, 보건, 포용 경제 관점 등 모든 관점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샤리아 경제의 재분배 메커니즘은 사회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는데, 이슬람 기반의 관점에서 빈자와 취약 계층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음. 이러한 이슬람의 가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모두에게 사회 정의의 가치가 되어주고 있고, 여러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이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에 일관된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 샤리아 금융 시스템의 위험 분산 기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구현하는 것에 필요한 위험 감내를 늘릴 수 있게 해주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하였음.
- 샤리아 경제 원칙은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의 4가지 주요 요소인 인적개발, 사회 강화, 경제 및 환경 보호 측면을 모두 지지하고 있음.
- 샤리아 경제의 잠재성은 새로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 원천이 될 수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샤리아 경제 및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이러한 재무장관의 발언은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샤리아 경제권의 중심이자 금융시장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샤리아 금융을 발전시키라고 주문한 방향과 일치하는 것임.